

선한 목자 예수

마 14:22-33

마 14: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

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일화를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'선한 목자이신 예수님'의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.

첫째, **예수님께서서는 영광의 자리가 아닌 사명의 자리에서 계셨습니다.**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원했지만, 예수께서는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시고,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셨습니다.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의 사명에 맞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.

둘째, **예수님께서서는 풍랑 만난 인생에 찾아오신다**는 것입니다.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맞아 밤새 고생하게 되었습니다.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. 그리고, 그들에게 다가 오셨습니다.

* 누가복음 15 장, 탕자의 아버지 예화, 사 30:18,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

셋째,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, **때에 따라 주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가 고난을 끝까지 감수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합니다.** 이런 경우, 주님은 고난받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, 고난을 끝까지 감당할 힘도 주시고, 지치지 않도록 샘솟는 용기를 부어주십니다. 그리고, 고난을 다 감당한 후에는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.

넷째, **우리가 예수님 안에 확실히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은 '평안'입니다.**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,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. 반대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, 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.

* 사 26:3,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.

나눔을 위한 질문

1.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마다하시고, 사명의 자리를 찾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바라 본 나의 마음을 목원분들과 나눠보세요.
2.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, 주님이 찾아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.
3. 지금 나는 평안하신가요? 나의 평안을 훼손하는 일이 있으신가요? 그 일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계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